

현대오일뱅크, 드림콘서트 후원

현대오일뱅크는 5월12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드림콘서트를 후원한다고 5월7일 발표했다.

현대오일뱅크는 1995년부터 매년 드림콘서트를 후원해왔지만 국제통화기금(IMF) 체제 이후 경영권이 외국계로 넘어가면서 중단한바 있으나 2010년 현대중공업이 외국계로부터 되찾은 후 국내 최고의 드림콘서트를 부활시키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.



2012년 드림콘서트에는 소녀시대, 동방신기, 카라, 비스트, 2PM, 2AM, 티아라, 포미닛, 다비치, 시스타, 앰블랙, 시크릿, 인피니트, 제국의 아이들, 틴탑, B1A4, 보이프렌드 등 청소년들에게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최정상 가수 20여개 팀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다.

4월 입장권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하루 만에 2만5000석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청소년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

현대오일뱅크는 밝혔다.

특히,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에 따라 중동, 타이, 베트남 등 주요 해외 거래처 고객 100여명을 초청했다.

또 입장권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우 청소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의미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.

<화학저널 2012/05/07>